桐溪 鄭蘊의 시(詩)에 나타난 선비정신

– 유배 및 좌천기의 시를 중심으로 –

鄭 時 烈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임강사)

Ⅰ. 서론

Ⅱ. ‘溫柔敦厚’의 시적 구현

Ⅲ. ‘反求諸己’의 自省적 자세

Ⅳ. ‘忍苦歲寒’의 군자적 면모

Ⅴ. 결론

KCI

<논문 요약>

본고는『동계집(桐溪集)』소재(所載) 시 가운데 주로 유배 및 좌천기의 시작(詩作)에 나타난 선비정신의 표현 양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계는 불혹(不惑)을 넘긴 1610년, 별시문과에 급제하면서 관로에 진출했다. 관직에 있는 동안, 동계는 일신(一身)의 안위(安慰)를 추구하며 복지부동하지 않았다. 그는 국가의 녹을 받는 관리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시대의 격랑에 맞서 철저한 투쟁적 자세로 일관했다. 필자는 이러한 강직한 면모에서 진정한 선비의 풍모를 읽을 수 있었으며, 울울한 역경의 시기에 지어진 작품에서 굴곡 많은 인생을 살다간 동계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동계의 선비 정신에 대해 고찰했다.

동계는 10년간의 제주도 유배와 북방으로 폄적되는 참담함 속에서도 언젠가 있을 외부와의 소통, 즉 조정으로부터의 소환을 기다리며 자성(自省)적 자세로 끈질기게 인내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동계의 시를 살펴본 결과 세 가지 특징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온유돈후(溫柔敦厚)'·'반구저기(反求諸己)'·'인고세한(忍苦歲寒)'으로 명명했다. 이상의 세 가지는 모두 수기(修己)와 관련된 덕목들이다.

약 400년 전 격동의 시기를 살다간 한 선비의 정신 세계를 탐구한 본고의 논의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동계(桐溪), 정온(鄭蘊), 선비정신, 온유돈후(溫柔敦厚), 반구저기(反求諸己), 인고세한(忍苦歲寒), 유배, 귀양, 좌천, 제주도

Ⅰ. 서 론

본고는『동계집(桐溪集)』소재(所載) 시 가운데 주로 유배 및 좌천기의 시작(詩作)에 나타난 선비정신의 표현 양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온(鄭蘊)(1569-1641, 선조2-인조19)의 자는 휘원(輝遠), 호는 동계(桐溪)·고고자(鼓鼓子), 본관은 초계(草溪)이다. 경상도 안음현 역동(현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에서 출생했으며, 내암(來庵) 정인홍(鄭仁弘)(1535-1623), 월천(月川) 조목(趙穆)(1524-1606), 한강(寒岡) 정구(鄭逑)(1543-1620) 등 당대의 거유(巨儒)를 사사(師事)했다.

동계는 불혹을 넘긴 1610년, 별시문과에 급제하면서 관로에 진출했다. 그는 광해군에서 인조 연간에 이르는 정치적 혼란기와 정묘·병자호란이라는 외환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국가를 위한 자신의 충정(忠情)을 분골쇄신의 자세로 실천했던 인물이다. 그 결과 광해군의 경운궁 환이(還移)를 반대하다가 경성판관으로 좌천되었으며, 영창대군 옥사 때는 광해군의 친국을 받고 10년간 제주도 대정현에 위리안치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또 1627년,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싸워서 지키자는 전수(戰守)의 입장에 섰으며, 그 후 병자호란 때는 척화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실패에 그쳤지만 자결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입증하는 열혈지사적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관직에 있는 동안, 동계는 일신(一身)의 안위(安慰)를 추구하며 복지부동하지 않았다. 그는 국가의 녹을 받는 관리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시대의 격랑에 맞서 철저한 투쟁적 자세로 일관했다. 필자는 이러한 강직한 면모에서 진정한 선비의 풍모를 읽을 수 있었으며, 울울한 역경의 시기에 지어진 작품에서 굴곡 많은 인생을 살다간 동계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동계의 선비정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동계집』[1]에 전하는 약 550여 수의 시 가운데 유배 및 좌천기의 시가

절반을 웃돌지만 선비정신에 입각한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대략 150수 정도 된다. 이 시들을 주 텍스트로 하면서, 그 외의 시작(詩作) 가운데서도 논의를 전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인용하도록 하겠다.

이들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동계에 대한 문학 방면의 기존 논의를 조사한 결과 3편의 논문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80년대 중반부터 대략 10년 간격으로 발표된 이들 세 논문은 우국, 연군, 향수, 수양, 자탄 등등 주로 시에 나타난 1차적 의미 파악에 치중한 내용적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동계의 시를 학계에 소개하고 알리는 데 기여했다.[2] 이처럼 동계의 유배 한시에 대한 연구가 이미 존재하지만 필자는 텍스트가 같을지라도 연구 방법이 다르다면 그 논문은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하기에 본 논의에서는 선비정신의 관점에서 동계의 한시에 대한 보다 정치(精緻)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선비'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체로 동양에서 '유(儒)' 내지 '사(士)'로 지칭되는 선비란 도(道)로써 이루어지고 덕(德)으로써 만인 앞에 우뚝 선 '도성덕립자(道成德立者)'로서의 군자를 지향해 나가면서 그러한 군자의 도리에 어긋남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3]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비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 경지인 군자는 『대학(大學)』에서 말한 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삶의 목표로 설정한 인간형이다.[4] 이상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1) 본고에 나오는 桐溪 詩·文의 번역은 『국역 동계집』 Ⅰ·Ⅱ·Ⅲ(조동영·박대현·공근식 譯, 민족문화추진회, 2000-2004)에 크게 힘입었음을 밝혀 둔다.

2) 동계의 시문에 대한 연구로는 고정우의 「동계 정온의 유배한시 연구」(제주대 석사논문, 1986), 양순둘의 「동계 정온 연구」(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여운필의 「동계 정온의 삶과 시」(『한국한시작가연구』 제9집, 한국한시학회, 2005) 이렇게 모두 3편이 있다. 고정우의 다른 논문인 「정온 유배한시의 초사 수용고」(『국문학보』 제8집,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1986), 「정온의 유배한시 연구」(『탐라문화』 제8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는 그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기에 편수에서 제외했다.

3) 정요일, 『漢文學의 硏究와 解釋』, 일조각, 2000, 19쪽.

4) 정요일, 앞의 책, 48쪽.

선비라는 명칭에는 관직의 유무(有無)를 떠나 자기로부터 말미암아 수양해 나간다는 극기복례(克己復禮)적 성격이 짙게 배어 있다. 특히 동계와 같이 좌천되거나 유배를 당한 처지에서는 치인(治人)에 해당하는 제가치국평천하(齊家治國平天下)보다는 마땅히 스스로를 다스리는 수신(修身) 즉 수기(修己)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일찍이 공자는 『논어(論語)』「안연(顔淵)」편에서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감(克己復禮)이 인(仁)을 행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처럼 수기(修己)는 극기복례는 물론이요, 주자가 '본심지전덕(本心之全德)'[5]이라고 풀이한, 유가의 중심 덕목인 인(仁)과도 의미상 맥락이 닿아 있다.

시련기의 동계는 절해고도인 제주도로 보내지는 절도안치의 유형에 처해졌다. 이는 『대명률』에 제시된 3000리 추방 대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기후가 나쁘고 토질이 척박한 섬으로 유배를 보내는 형벌이다. 그는 10년간의 유배와 경성판관으로 좌천되는 참담함 속에서도 언젠가 있을 외부와의 소통, 즉 조정으로부터의 소환을 기다리며 자성(自省)적 자세로 끈질기게 인내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동계의 유배·좌천시를 살펴본 결과 세 가지 특징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온유돈후(溫柔敦厚)'·'반구저기(反求諸己)'·'인고세한(忍苦歲寒)'으로 명명하겠다. 이상의 세 가지는 모두 수기(修己)와 관련된 덕목들이다.

일반적으로 온유돈후는 부드러움을, 반구저기는 일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반성적 자세를, 인고세한은 인생의 시련기, 고난의 시기를 견뎌냄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 이론적 정의가 간단한 것과는 달리 한 인물의 실제 삶 속에서는 그리 단순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일정 부분 변형을 거쳐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데 본고에서는 동계의 시를 대상으로 이들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약 400년 전 격동의 시기를 살다간 한 선비의 정신 세계를 탐구한 본고의 논의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

5) 『論語』「顔淵」篇 第1章 註.

며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Ⅱ. '溫柔敦厚'의 시적 구현

'온유돈후'라 함은 흔히 "성품이 온화하고 인정이 두터운 것", 혹은 "지나친 기교나 노골적 표현이 없는 문학적 정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온유돈후는 일찍이 율곡(栗谷) 이이(李珥)(1536-1584)가 「정언묘선서(精言妙選序)」에서 말한 바 문학이 추구하는 '정(正)'의 경지라 할 수 있다.[6] 일찍이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은 「도산십이곡발(陶山十二曲跋)」에서 이별(李鼈)의 「육가(六歌)」가 완세불공(玩世不恭)한 뜻이 있어 온유돈후한 실속이 적은 것이 아쉽다고 했는데, 이는 세상을 희롱하는 공손하지 못한 뜻이 있으면 온유돈후한 작품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퇴계의 이 말은 충심(衷心)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함과 절도가 비판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온유돈후를 오로지 무비판적인 부드러움과 유순함만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온유돈후한 시는 진실된 내용으로 인정을 곡진하게 드러내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바른 데로 이끄는 실속이 있어야 하는데[7] 동계의 문장에서는 온유돈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을 수 없기에 동시대를 살았던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1542-1607)의 글을 통해 당대인들이 생각한 온유돈후의 일단(一端)을 살펴보겠다. 서애는 진정한 온유돈후란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며, 노여울 때 노여워하지만 모두 '발이개중절(發而皆中節)'하여 절도를 잃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 그러나 원망하되 하늘의 법칙에 지나쳐 분한(忿恨)에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난(亂)이다. 오직 시의 말은 온유돈후하여 스스로 그 마음의 지성을 다할 뿐이고, 격발(激發)하여 지나치게 심한 말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시를 귀하게 여

6) 임형택, 『韓國文學史의 視角』, 창작과비평사, 1984, 43쪽.
7) 정요일, 『漢文學批評論』, 집문당, 1990, 221쪽.

겨 원망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8]

위에 제시된 서애의 언급은 원망은 군자의 일이 아닌데 시로써 원망해도 성정의 올바름을 볼 수 있느냐는 혹자의 질문[9]에 대한 대답이다. 이처럼 현실에서의 온유돈후는 그저 가릴 줄 모르고 무조건 부드럽기만 한 마음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10] 이러한 온유돈후의 정신 속에는 온화함만이 아닌 세상사에 대한 분별력과 비판 정신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서[11], 온유돈후한 시는 감정의 표출이 "낙이불음, 애이불상(樂而不淫, 哀而不傷)"과 같이 그 절도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진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동계의 시에서는 유배 내지 좌천으로 인한 침울함을 자연 경물을 매개로 에둘러서 부드럽게 표현했다. 그리고 분명 만족스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가 유머러스하다. 이처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 고독, 번민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온유돈후한 수사 속에 융해시켜 나타냄으로써 시인의 성정(性情) 역시 험난한 외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가 주는 시교(詩敎)[12]의 혜택을 입어 온유돈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동계가 힘쓴 수기(修己)의 결과이며, 고난의 시기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그럼 실제 작품을 통해 시 속에 구현된 온유돈후함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온유돈후라는 용어 자체에서 느껴지듯 우선 의미 전달이 부드러

8) 柳成龍, 『西厓集』 卷十五, 「雜著」, 「詩敎說」(『西厓全書』 卷一, 290면), "然怨而過乎天則, 至於忿恨則亂. 惟詩之言, 溫柔敦厚, 自盡乎其心之至誠, 而無激發過甚之辭. 故聖人貴之, 謂可以怨."

9) 柳成龍, 『西厓集』 卷十五, 「雜著」, 「詩敎說」(『西厓全書』 卷一, 290면), "或問於余曰, 詩可以怨, 怨非君子之事, 猶可見性情之正耶."

10) 정요일, 『漢文學批評論』, 집문당, 1990, 221쪽 참조.

11) 정시열, 「西厓 柳成龍의 '說' 硏究 -'說'에 나타난 西厓의 면모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제40집, 한국한문학회, 2007, 115쪽.

12) 그 나라에 들어가 보면 그 교화된 정도를 알만 하니 그 사람됨이 온유돈후한 것은 시로써 교화된 증거이다.(孔子曰, 入其國, 其敎可知也, 其爲人也, 溫柔敦厚, 詩敎也.)라는 『禮記』 「經解」篇의 말처럼 온유돈후한 시는 읽는 사람의 성정을 온유돈후하게 만든다.

운 시부터 분석해 보겠다. 다음에 제시된 시는 <철령으로 가는 길에(鐵嶺途中)>[13]라는 오율(五律)이다. 북변(北邊)으로 가는 중에 쓴 작품으로 모종의 여유가 느껴진다.

秋風鐵嶺路　가을 바람에 철령 가는 길
馬上苦吟人　말 위에서 괴로이 읊조리는 사람
石齒淸湍瀉　돌 틈으로 맑은 여울 쏟아져 흐르고,
山顔錦葉新　산꼭대기엔 단풍잎 산뜻하다.
晴雲棲半岫　비 갠 뒤 구름 산봉우리에 걸려있고,
幽鳥弄佳辰　깊은 숲속 새는 좋은 계절을 만끽한다.
行役雖云憊　행역이 비록 고달프더라도
愁眉可一伸　근심스런 눈썹을 한 번 펴보자.

수련에서는 차가운 가을 기운을 몸으로 받으며 가고 있는 좌천객의 서글픔이 묻어 난다. 실로 이 서두의 정조가 시인의 진짜 심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함련과 경련에서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전개된다.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 경물로 눈을 돌림으로써 닫혔던 시인의 마음은 한층 넓어진다. 마지막 미련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정 속에서도 스스로를 격려하는 돈후함이 나타나 있다.

이 시는 탄식조로 흐를 가능성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찾고자 노력하는 시인의 성품에 힘입어 그 반대의 어조를 띠게 되었다. 동계가 제주도로 귀양갔을 때 지은 칠률(七律) <윤이수에게 주다(贈尹而受)>의 미련부에서도, "돌아가거든 식구들에게 걱정말라고 하게. 영주가 비록 멀지만 또한 임금의 땅이라네."[14]라는 말로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했다.

동계는 칠언고시(七言古詩) <동해에서 읊다(東海吟)>[15]에서 에두름의

13) 鄭蘊,『桐溪集』卷一.
14) 鄭蘊,『桐溪集』卷一, "歸語妻孥莫相念, 瀛洲雖遠亦王區."
15) 鄭蘊,『桐溪集』卷一.

미학을 보여준다. 벼슬길의 고충을 부드럽게 돌려쳐 표현한 데서 시인의 온유돈후한 성품을 읽을 수 있다.

……
東海罕聞敗舟楫　동해에는 배가 뒤집혔다는 말 드문데
宦海日日浮人顚　환해에는 날마다 사람이 떠다니는구나.
……
所以我從宦海來　그래서 나는 환해를 따라 왔다가
欲浮東海觀洪瀾　동해에 뜨서 큰 물결을 보고자 하노라.

이 시에서 동계는 정작 위험한 바다에는 빠져 죽는 사람이 드문데, 살고자 선택한 벼슬길에서는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말했다. 이러한 환해(宦海)에서 좌절을 경험한 시인은 인간사의 소소함에 얽매이는 대신 열린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드러내고 있다. 결코 성마른 법 없는 어조에서 동계의 대인적 풍모가 느껴진다.

이처럼 부드러운 성품의 동계였지만 그가 무조건 유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정의를 위해 할 말은 하는 강직한 면모도 지니고 있었으니 이는 온유돈후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스승 정인홍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잘 드러난다.

> 제가 선생님 문하에 출입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이 아닌데, 만약 그 말하고 싶은 것을 간직한 채 토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겉모습으로만 선생님을 모신 것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도 겉으로 아부하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취하시겠다고 문하에 발을 들여놓게 하셨겠습니까.[16]

정인홍에게 보낸 위의 서간에서 단편적으로나마 의리에 충실하고자 애쓰는 동계의 성품을 파악할 수 있다. 조정의 논의, 붕당과 관련하여 스승에게 범안(犯顔)할 수 있는 용기는 진정 온유돈후한 자만이 발휘할

16) 鄭蘊, 『桐溪集』 卷二, 「與鄭仁弘書」, "某出入門下, 未爲不久, 若含蓄其所欲言者而不爲吐露, 則是以面貌事先生也. 先生亦何取於面諛之人, 而使之容跡於門屛乎."

수 있다. 충돌을 피하고자 타협과 유순함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맹자가 지적한 '사이비(似而非)' 즉 가짜 유덕자(有德者)인 향원(鄕原)[17]에 지나지 않는다. 시에서는 그의 이러한 자세가 유머러스한 불평의 어조를 띤다. 실제 작품을 통해 확인해 보겠다.

다음 시는 제주에서 지은 칠률(七律) <귀양온 스님에게 주다(贈謫僧)>[18]의 함련과 경련이다.

……

香岳瀛峯俱異境　묘향산이나 한라산이나 모두가 색다른 풍경
閑居謫處總淸遊　한가히 지내거나 유배온 것 다 좋은 유람이라.

……

莫怪南冠拘縶苦　남쪽으로 귀양 와서 묶인 채 고생한다 괴이히 여기지 말라.
只緣天械未曾休　녹봉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런 게요.

'이경(異景)' 즉 '색다른 풍경'을 공통분모로 해서 유람과 유배를 동일시한 함련의 내용은 너무 초연해서 헛웃음을 짓게 한다. 더 나아가 미련에서는 남쪽 끝자락으로 귀양온 자신의 신세를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기법은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 쓴 오율(五律) <대정현(大靜縣)>의 미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행히도 도깨비를 막는 객이 있어, 외로운 성 동쪽 모퉁이가 완전해졌네."[19] 이 시구는 섬의 한 귀퉁이에 위리안치된 자신의 처지를 오히려 섬을 지키는 병사인 양 표현함으로써 불편한 심사를 유머러스하게 처리했다.

다음에 소개된 오언배율(五言排律) <마운령을 넘으며(踰磨雲嶺)>[20] 역시 동계의 유머가 빛나는 작품이다.

人謂磨雲高　사람들은 마운령이 높다고 하지만

17) 공자는『論語』「陽貨」篇에서 鄕原을 德의 賊이라고 했다.
18) 鄭蘊,『桐溪集』卷一,
19) 鄭蘊,『桐溪集』續集 卷一, "賴有禦魑客, 孤城東角完."
20) 鄭蘊,『桐溪集』卷一,

我謂磨雲卑　나는 마운령이 낮다고 이르노라.
……
望之不得見　바라보아도 볼 수 없으니
磨雲是丘陵　마운령은 언덕일 뿐이다.
磨雲如可高　마운령이 만약 높아질 수 있다면
我當荷簣登　나는 마땅히 삼태기를 지고 오르리라.

남들은 다 높다고 하는데 자신만 낮다고 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 제시로 시는 시작된다. 본고에서는 생략했지만 시의 중반에서 그 이유가 나온다. 다들 높다고 하는 마운령에 올라섰지만 그리운 고향과 가족이 보이지 않았기에 낮다고 말한 시인의 토로에서 오직 자신의 신념을 잣대로 세상사에 대처했던 동계의 꼿꼿함을 느낄 수 있다. 바라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마운령은 작은 언덕일 뿐이라는 그의 음성, 이 언덕을 높일 수만 있다면 기꺼이 삼태기를 지겠노라는 그의 너스레는 경성판관으로 좌천됐을 무렵의 서글펐던 당시 심경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작품임에 분명하다.

이외에도 그의 불편스런 심사가 유머의 형태를 빌려 표현된 작품은 많다. 칠절(七絶) <성구의 시에 차운하다(次聖求韻)>의 전구와 결구에서는 "누군가 와서 벼슬의 성쇠에 대해 물으니, 웃고 술집을 가리키며 전의[21]를 재촉하노라."[22]라고 했다. 인생과 환로의 영고성쇠에 대해 묻는 누군가에게 자세한 대답 대신 '전의(典衣)' 즉 옷을 저당잡히고 술이나 먹자는 말은 오히려 직접적인 설명 이상의 의미를 전달한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지은 칠절(七絶) <우연히 읊으며(偶吟)>에서는 "성주께선 도리어 위태로운 목숨 촉박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돌아가 붉은 노을 신선과 짝하기를 허락하셨네."[23]라고 하여 자신을 사형에 처하려 했던 광해

21) 杜甫의 시 <曲江>에 "조정에서 돌아오면 날마다 봄옷을 전당잡히고, 매일 강가에서 잔뜩 취하여 돌아온다.(朝回日日典春衣, 每日江頭盡醉歸)"라는 시구가 나온다. 典衣는 옷을 전당 잡히고 술을 산다는 의미이다.
22) 鄭蘊, 『桐溪集』 卷一, "有人來問升沈事, 笑指酒家催典衣."
23) 鄭蘊, 『桐溪集』 卷一, "聖主却憐危命促, 許令歸伴紫霞仙."

군을 관대한 군주로, 겨우 목숨을 건지고 귀양온 자신을 신선의 친구로 그려냈으니, 유머 속에 아픔이 어려 있다.

사실 동계의 제주도 귀양살이는 고달픔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온유돈후함을 잃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1614년 가을에 쓴 「대정현동문위리기(大靜縣東門內圍籬記)」와 1622년에 쓴 「임낙옹의 물음에 답함(答林樂翁問)」을 살펴보겠다.

> ① "아, 나의 죄는 의심할 여지없이 죽어 마땅한데도, 다행이 임금의 덕을 입어 살아서 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오늘 그대들과 함께 웃으며 얘기하는 것도 또한 임금의 은덕이 미친 것입니다. 풍토가 좋고 나쁘고야 어느 겨를에 논하겠습니까."하니, 응대하던 자가 탄식하며 물러갔다.[24]

> ② 간혹 술 때문에 두려운 일이 생겨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이다. 비록 겨울밤이라 할지라도 말똥말똥한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술기운을 얻으면 반드시 밤에 정신없이 단잠을 잔다. 이것이 술을 못 끊는 까닭이다.[25]

①은 제주도 대정현, 자신이 위리안치된 곳에 대해 서술한 「위리기」의 끝 부분이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 동계는 시비(是非)를 떠나 임금의 처분에 순종하는 충신의 모습을 견지한다. 처분에 분노하는 대신 살아있음 자체에 감사하는 그의 모습은 투신(投身)을 택한 굴원과는 사뭇 다르다. 이는 충신이라는 공통분모로 묶인 두 인물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②에서는 동계가 귀양지에서 불면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술 없이는 긴 겨울밤을 뜬 눈으로 지새울 만큼 그의 고민은 심각했던 것이다.

---

24) 鄭蘊, 『桐溪集』 卷二, 「大靜縣東門內圍籬記」, "噫, 以吾之罪則當死無疑, 幸賴天王聖明, 生放海島. 今日與若等同笑語, 亦莫非恩波之及. 風土之善不善, 何暇論說. 對者噓唏而退."

25) 鄭蘊, 『桐溪集』 卷二, 「答林樂翁問」, "間有因酒可怕之事, 欲止而不能止, 蓋鼓鼓子夜不能寐. 雖冬之夜, 耿耿達朝者居多, 若得酒氣, 必昏然酣睡. 此其爲不絶之道也."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온유돈후함을 잃지 않았다. 이는 "오십 세가 되고부터는 본원인 마음의 바탕이 거칠어지고 방자해질 것을 심히 두려워해서 비로소 일깨우고 거두어 다스리는 공부에 뜻을 두었다."[26]고 했듯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수기(修己)에 전념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동계는 경물을 통해 자신의 정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다음은 칠절(七絶) <화분에 국화를 읊은 두 수(詠盆菊二首)>[27] 가운데 둘째 수이다.

羞競桃紅李白時　붉은 복사꽃, 흰 오얏꽃과 때를 다툼이 부끄러워
苦持霜打雪侵姿　괴로이 눈서리 무릅쓰는 자태를 지니고 있구나.
朝曛又對孤囚客　아침 저녁으로 또 외로운 귀양객을 대해야 하니
植物之中數亦奇　식물 가운데 운수 또한 기박하여라.

이 시에서 동계는 국화에 자신의 감정을 기탁하고 있다. 시인은 화려한 뭇 꽃들과의 다툼을 피하고자 추위를 택해 개화하는 국화의 자태에서 풍상을 겪으며 외지에서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전구(轉句)에 나타난 '외로운 귀양객'이란 말에서 동계가 자신의 현재 처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탄식하는 대신 국화의 운명을 안타까워하는 말로 정회(情懷)를 풀어냈다.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상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자질을 인(仁)이라고 할 때[28] 국화를 바라보는 동계의 시선에서 인의 정신을 감지하게 된다.

이처럼 동계의 시에는 경물을 통해 자신의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부분이 많다. <시든 해바라기를 읊으며(詠殘葵)>에서는 "늙은 해바라기 성기고 찬데 풍상을 만나니, 가지와 잎 꺾이고 시들었지만 여전히 향기를 지니고 있네."[29]라고 하여 거듭된 시련 속에서도 충정만은 여전함을

26) 鄭蘊, 『桐溪集』 卷二, 「答林樂翁問」, "僕自知非之歲, 惕然懼夫本源方寸之地, 荒無放倒, 始有意於喚醒收治之功."
27) 鄭蘊, 『桐溪集』 卷一.
28) 김낙진, 「義理-공존과 공익을 위한 모색-」,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499쪽.
29) 鄭蘊, 『桐溪集』 卷一, "老葵疏冷遇風霜, 枝葉摧殘尙抱香."

과시했으며, <밤에 앉아서(夜坐)>에서는 “쓰르라미 어찌 불평스런 일이 있는지 밤새도록 우는 소리 더욱 슬프구나.”[30]라고 하여 쓰르라미의 울음 속에 자신의 불평을 기탁했다. 또 <진천의 연당에 머물며 (留鎭川蓮堂)>에서는 “가을비 열흘을 내리어 오래도록 개지 않으니, 연잎에 듣는 많은 소리 밉살스럽구나.”[31]라고 하여 밤새도록 내리는 가을비 소리에 근심 많은 나그네의 객수를 담아냈다.

철학적 내용의 시도 있는데 오언배율(五言排律) <초승달을 보며(見新月)>[32]에서는 기울고 차는 달을 보며 인생의 영고성쇠(榮枯盛衰)에 대해 읊었다.

……
盈而虧必至　차고 나면 이지러짐이 반드시 오고
虧則盈還生　이지러지면 차올라 되살아나더라.
天道且如此　하늘의 도가 또한 이와 같으니
人情尤可明　사람의 정은 더욱 분명하여라.
……
嘗聞天與鬼　일찍이 들으니 하늘과 귀신은
盈者常害之　가득찬 것을 항상 해한다더라.
見月反吾人　달을 보고 나를 되돌아 보면
一理君其知　한 가지 이치임을 그대는 알리라.

동계는 평탄치 못한 삶을 살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인생의 굴곡에 마주칠 때마다 후회, 탄식, 불만의 정이 일어남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시에서 이런 다양한 정서들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위에 제시된 시는 동계가 지은 경물시의 최종편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인생사의 이치를 직접 말하는 대신 달을 통해 표현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직접적인 토로보다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 이처럼 동계의 온

30) 鄭蘊,『桐溪集』卷一, “寒蛩有底不平事, 達夜啾啾聲轉悲.”
31) 鄭蘊,『桐溪集』卷一, “秋雨連旬久不晴, 生憎蓮葉苦多聲.”
32) 鄭蘊,『桐溪集』卷一.

유돈후함은 부정적인 정서라 하여 숨기는 일 없이, 경물을 통해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反求諸己'의 自省적 자세

'반구저기'란 곧 반성을 뜻한다. 동계에게 있어 유배와 좌천, 특히 유배는 그에게 반성의 공간을 제공했다. 동계의 행적은 불의와는 거리가 먼 교결(皎潔)함 그 자체였던 만큼 그의 반구저기는 자신의 불의에 대한 반성이 아닌 성품에 대한 성찰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자탄(自歎), 자조(自嘲), 자학(自虐)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맹자(孟子)』「이루(離婁)」 상편에, "행하고도 얻지 못함이 있거든 모두 자신에게 돌이켜 찾아야 하니 그 자신이 바루어지면 천하가 돌아오는 것이다."[33]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스스로 그 인(仁)과 지(智)와 경(敬)을 돌아봄으로써 치기(治己)를 더욱 치밀히 한다면 그 공효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해짐을 말한 것이다. 또한 『논어(論語)』「위령공(衛靈公)」편에도, "군자는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34]는 언급이 나오는데 둘은 모두 동일한 맥락의 말들이다.

본장에서 논의할 '반구저기'는 이처럼 자신의 뜻과 어긋나는 일, 즉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자성(自省)적 자세이다. 일찍이 맹자가 말했듯 스스로 돌이켜보아 인(仁)과 예(禮)가 있었고, 충성스러웠다면[35] 군자는 더이상 근심하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군자에게는 수신(修身)을 위해 평생 동안 안고 가야 할 '종신지우(終身之憂)'는 있을지언정 갑작스레 생기는 '일조지환(一朝之患)'은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확인했듯 반구저기는 수기(修己)와 밀접하게 관련된 덕목이다. 동계의 시에서 이러한 자성적 면모는 유머러스하게 나타나기도 하

33) 『孟子』「離婁」上篇, "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 其身正而天下歸之."
34) 『論語』「衛靈公」篇, "子曰,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35) 『孟子』「離婁」下篇, '自反而仁', '自反而有禮', '自反而忠'.

지만 반대로 자신의 낙백(落魄)한 처지를 자조(自嘲)하거나 자학(自虐)하는 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하지만 시류에 부합하지 않고 오직 신념에 따라 정치적 결단을 내렸던 동계의 강인한 모습을 떠올린다면 이러한 자조와 자학에는 이유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상 동계는 자신의 견해가 용납되지 않고, 조정 중신들과도 뜻이 어긋나자,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 더이상의 출사를 단념한 채 70세의 노구를 이끌고 덕유산 남쪽 자락에 터전을 마련하여, 3년간 산전을 일구며 은거하다 여생을 마쳤다. 그의 이러한 행적은 이욕에 얽매인 정치 현실 속의 온갖 시비에 염증(厭症)을 느낀 나머지 세속을 등지고 자연 속에서 평범한 인간이 되고자 했던 최고운(崔孤雲)을 떠올리게 한다.[36] 이처럼 동계는 대의에 입각한 철저한 도학적 자세로 평생을 일관한 올곧은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다면 유배 및 좌천기의 시에 나타난 자학과 자조는 자신이 믿었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당시 상황에 대한 실망과 실심에서 기인했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의 시에는 자신을 충신의 대명사인 굴원에 빗댄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굴원이 「어보사(漁父辭)」에서 자신의 처지가 영락하게 된 원인이 세상과 불화한 데 있음을 밝혔듯이, 동계 또한 방축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리는 반구저기의 자세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의 염(念)도 약간 나타나는데 이처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버린 듯한 그의 고백에는 쓸쓸함이 묻어난다. 방축기의 고초가 그만큼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 이상에서 정리한 반구저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 작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계는 자신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다. 다음에 제시된 오율(五律) <우연히 읊다(偶吟)>[37]의 수함경련(首頷頸聯)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36) 이구의, 『崔孤雲 文學 硏究』, 아세아문화사, 2005, 281-282쪽 참조.

37) 鄭蘊, 『桐溪集』 續集 卷一.

率爾無機械　성품이 진실하여 거짓이 없고,
夷然去域畛　마음은 편안하여 경계를 떠났네.
逢人見心曲　사람을 만나면 속마음을 보였고,
開口露天眞　입을 열면 천진함을 드러냈지.
屢躓因茲病　자주 넘어짐은 이 병 때문인데
知非尙自循　잘못을 알고도 여전히 그런다오.
……

마음이 진솔하고 순박하여 누구에게나 속내를 드러냄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지만 때로는 이로 인해 화를 입을 수도 있다. 동계는 이러한 인간사의 이치를 이미 깨달았지만 본성이 영악하지 못한 탓에 그의 삶은 사건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자기 성찰에 후회의 염(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성품에 대한 자부심이 배어 나온다.

탄식하는 듯하면서도 당당한 그의 어조는 단순한 반성의 목소리가 아니다. 오늘의 재앙이 발생한 원인을 단지 자기에게서 찾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꿈을 떠올리며 쓴 <새벽 꿈을 기억하며(記曉夢)>에서는 "꿈에 선친이 직접 매를 드셨네. …… 아마도 함부로 말하다 취한 위태로움을 꾸짖으신 듯"[38]이라고 읊었으며, <느낀 바 있어(有感)>에서는 "남이 나를 빠뜨린게 아니라 내 스스로 빠진거라네. 돌을 굴린 자 누구인가. 가까운 친척이었네"[39]라고 하여 끝까지 자신의 언행과 성품에서 화의 원인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인심(人心)을 가진 이가 읽는다면 누구나 이 시들이 단순하고 무의미한 자탄의 말 조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유배기나 좌천기에 관계없이 동계의 글에는 자성적 내용이 많다. 아마도 그는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선비의 본분이라 여겼던 듯하다. 다음에 제시된 인용문들을 살펴보겠다.

① 아! 올해 내 나이 문득 50이 되었네. 지난 49년간의 마음가짐과 행실을 돌이켜보니 마음에 많이도 부끄럽구나. 어버이를 모심에 볼 만한 행실이 없었고,

38) 鄭蘊,『桐溪集』卷一, "夢受先君手自笞 ... 怳責狂言浪取危."
39) 鄭蘊,『桐溪集』卷一, "人非陷我我自陷, 下石者誰强近親."

조정에 서서는 스스로 재앙을 자초했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신 “사십 오십이 되어도 알려짐이 없다는 것”이 나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40]

② 아! 출처는 큰 절개이기에 옛날 군자는 반드시 이에 신중했다. 진실로 조금이라도 비평할 점이 있다면 그 나머지는 어찌 볼 게 있겠는가.[41]

③ 저는 어리석고 아는 것이 없어 중도를 지키지 못하여[42] 낭패를 당하고는 남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취한 것이니 오히려 누구에게 허물을 돌리겠습니까.[43]

①은 「설날 아침에 스스로를 경계한 잠의 병서(元朝自警箴幷序)」의 일부로서 극겸(極謙)의 표현 속에 나타난 동계의 결백지사(潔白志士)적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거백옥이 50세에 지난 49년간의 잘못을 깨달았듯 그 또한 공자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엄격하게 반추했다. 동계는 <모리에 자리를 잡고서(某里卜居)>란 시에서도 “칠십 년간의 일들, 돌이켜 보매 많이도 부끄럽구나.”[44]라는 말로 자신의 생애를 돌아봤다.

이처럼 엄정한 자세는 그가 쓴 서문(序文)과 서간(書簡)에서도 나타난다. ②는 「공감의 묘지 뒤에 쓰다(書孔戡墓誌後序)」의 일부인데 출처의 도에 부끄럼이 없고자 했던 그의 성품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서간문인 ③에서도 사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는 반구저기의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동계는 철저하게 수기(修己)의 정신에 입각한

40) 鄭蘊, 『桐溪集』 卷二, 「元朝自警箴幷序」, “噫, 余今年忽五十矣. 追思四十九年前處心行己之道, 多有可愧於心者. 事親, 無可觀之行, 立朝, 有自作之孽, 夫子所謂四十五十而無聞焉者. 非余之謂乎.”

41) 鄭蘊, 『桐溪集』 卷二, 「書孔戡墓誌後序」, “噫, 出處大節也, 古之君子必於是謹重焉. 苟有一毫之可容評議, 則其餘何足觀也.”

42) 『周易』 下經, 「艮」에 “‘간기보’는 中으로서 바르기 때문이다.(艮其輔, 以中, 正也)”라고 했다. ‘艮其輔’는 中에 그침을 이른다.

43) 鄭蘊, 『桐溪集』 卷二, 「答河洗馬, 晉別坐, 朴上舍書」, “僕愚無知識, 不能艮輔, 狼狽南還. 滄浪自取, 尙誰歸咎.”

44) 鄭蘊, 『桐溪集』 卷一, “七十年前事, 追思愧意饒.”

자성적 자세로 신변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 수용했다. 다음에 제시된 칠절(七絶)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聞蟋蟀)>[45]에서는 그의 자조적 음성이 감지된다.

通宵唧唧有何情　밤새 울어대니 무슨 정이 있어서인가.
喜得淸秋自發聲　맑은 가을이라 기뻐하며 절로 내는 소리라.
微物亦能隨候動　미물 또한 철을 따라 움직이는데
愚儂還昧待時鳴　어리석은 나는 때에 맞춰 울 줄을 모르는구나.

가을 밤의 정취를 돋우는 귀뚜라미 소리는 꾸밈없이 그 천진함을 다 드러낼지라도 계절에 어울리는 음향인지라 모두에게 환영 받는다. 이처럼 벌레도 때를 봐서 제 본성을 펴는데 사람인 자신은 그렇지 못함을 자조하고 있다. 시의(時宜)와 중론(衆論)보다는 신념을 따랐던 그의 강직함에는 이러한 내면적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동계는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 만큼은 외골수였지만 동시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그랬기에 심적 고통 또한 컸다. <감회가 있어(有感)>란 시에서는 하찮은 짐승조차 자기 몸을 지킬 줄 아는 데 도리어 사람인 자신은 그렇지 못함을 "내 생애 도리어 그러지 못하니, 끝내 등불로 달려드는 불나방의 위험 몰랐구나."[46]라는 말로 자조하며 탄식했다. 미물을 통해 자신을 애기하는 그 시적 어조가 어찌 보면 유머러스하기도 한데, 이는 동계의 자성적 어조가 지닌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시는 오언배율(五言排律) <창시가 고향으로 갈 때 이별하며 주다(贈別昌詩還鄕)>[47]의 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동계의 인생에서 출처(出處)와 관련된 대사건인 함경도 좌천 및 제주도 유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45) 鄭蘊,『桐溪集』卷一.
46) 鄭蘊,『桐溪集』續集 卷一, "吾生反不若, 終昧赴燈危."
47) 鄭蘊,『桐溪集』卷一.

……
乃翁性純愚　　이 아비는 성격이 순진하고 우직하여
遇事不守雌　　일을 당하면 가만있지를 못해
北塞昔風霜　　예전엔 북쪽 변방에서 풍상을 겪었고
南溟今纆徽　　지금은 남쪽 바다에 묶여 있단다.
……

자신을 만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들에게 준 이 시는 총 60행의 장편으로서 당시 그의 절절한 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살아가는 데 있어, 특히 환로(宦路)에서는 순진하고 우직함이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않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단순함은 때로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한다. 동계가 남북을 오가며 시련의 시기를 겪어야 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 시에서도 나타나듯이 철저히 자신에게서 일의 원인을 찾는 동계의 자세는 때로 고통을 즐기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 이러한 반구저기의 자세야말로 국토의 외로운 모퉁이에서 인고의 시기를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자성(自省), 자조(自嘲), 자학(自虐)을 통한 반구저기의 태도가 나타난 시구들을 모아 모았다.

① 言狂宜見斥　　말이 경망했으니 배척당함이 마땅하고,
道狹固難寬　　도가 좁으니 진실로 용서받기 어렵네.

② 有客本踈妄　　이 사람 본디 엉성하고 망령되어
明時多罪愆　　밝은 시절인데도 죄와 허물 많구나.

③ 昧於時勢言宜擯　　시세에 어두우니 말은 응당 배척될 것이요,
濟得艱危計亦疏　　난국을 구제하려 했으나 계책 또한 엉성했네.

①은 오율(五律)의 함련으로서 <밤에 앉아 우연히 읊조리며(夜坐偶吟)>[48]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고요한 밤 스스로를 성찰한 시이다. 말을 조심하지 않은 데다 도가 협소했기에 남을 포용하지 못했고, 그 결과

마침내 방축당했음을 술회한 대목이다. 이러한 자조는 때로 자학으로까지 나타나는데 이는 그가 제주도에서 지은 <우연히 읊으며(偶吟)>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찌는 더위 산 남쪽 구석이 제일 심하니, 미치광이를 가둬두기에 참으로 마땅하도다.”[49] 자신을 미치광이로 표현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으며, 가장 험한 곳에 위리안치시킴이 합당하다는 부분에서 자성을 넘어선 자학적 토로가 절정을 이룬다.

②는 오율(五律) <3일 도중에서(三日途中)>[50]의 수련으로서 경성으로 가는 도중에 지은 시로 보인다. 역시 자성적 어조로 되어 있다. 공자는 『논어(論語)』「태백(泰伯)」편에서 “나라에 도(道)가 있을 때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51]”라고 했다. 선비가 치세(治世)를 당해 용렬해져서는 곤란하다. 동계는 치세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기는커녕 오히려 좌천을 가는 자신의 처지를 천하게 여긴 듯하다. 물론 광해군 시절이 치세가 아님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계는 자기에게서 일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

이처럼 스스로의 허물을 밝히는 데 망설임이 없었던 그의 태도는 <상소문을 태웠다는 말을 듣고서(聞焚疏)>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미친 말, 망령스런 의론이 재가 되었으니, 어리석은 고집불통이 비로소 말조심을 알겠구나.”[52] 이 시에서 말하는 상소문이란 바로 동계가 영창대군 옥사와 관련해서 올린 「갑인봉사(甲寅封事)」를 지칭한다. 이 상소로 인해 그는 제주도에 10년간 위리안치된다. 자신의 처신이 분명 옳았음을 알았지만 그는 결코 시절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책한다. 그것이 선비의 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③은 <탄식하며 우연히 읊다(自歎偶吟)>[53]란 작품으로서 칠률(七律)

48) 鄭蘊, 『桐溪集』 續集 卷一.
49) 鄭蘊, 『桐溪集』 卷一, “炎蒸最是山南角, 端合狂生畫地遷.”
50) 鄭蘊, 『桐溪集』 續集 卷一.
51) 『論語』「泰伯」篇,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52) 鄭蘊, 『桐溪集』 續集 卷一, “狂言妄論成灰燼, 愚戇方知舌可捫.”
53) 鄭蘊, 『桐溪集』 續集 卷一.

의 함련이다. 자신이 지닌 우국의 염을 실천에 옮기려 했으나 재주가 짧은 탓에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고 말았음을 고백했다. 지난 20여 년간의 환로(宦路)를 돌아본 동계는 이 시에서 자신을 시세에 어두운 사람으로 평했다. 시세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에 충실했던 그의 선택은 본인에게 늘 곤란을 안겨 주었다. 국난을 당해서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결을 시도했으나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 이처럼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불여의(不如意)'한 일의 연속이었다. 이에 대해 동계는 그 원인을 앞서의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

1611년 무렵, 동계는 경성 판관으로 좌천되어 갈 적에 <풍전역에 도착하여 병조참의로 가는 이호신을 만나다(到豐田驛, 逢李好信, 兵議赴命)>[54]란 오율(五律)을 지었는데, 이 시에는 그의 자성적 면모가 착잡한 심경과 어우러져 나타난다.

……
承恩趨魏闕　그대는 은혜를 받아 조정으로 향하고
負罪向蠻煙　나는 죄를 지어 변방으로 향하네.
……
自歎無遠識　탄식하노니, 원대한 식견 없어,
未與浴同川　그대와 같은 물에 목욕하지 못하는구나.

시의 함련과 미련에 해당하는 위의 시구에는 축하와 부러움이 혼효되어 있다. 하지만 이처럼 복합된 감정의 교차 가운데서도 그는 끝내 자신의 좌천에 대해 변명하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를 탓할 뿐이다. 동계가 이런 자세를 끝까지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추구한 행동에 일말의 사심도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전라도 해남현의 어느 객관에 묵으며 지은 시에서, "멀리 도깨비를 막는 것 또한 신하의 직분이니, 뒤집히고 위태로워도 하늘을 원망치 않으리라."[55]고 했다. 근본적으로 귀양 역시 자신의 신분이 신하이기 때

54) 鄭蘊, 『桐溪集』 卷一.

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동계의 자성(自省)은 자신의 성품에 대한 성찰이지, 결코 자신의 불의에 대한 반성이 아니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는 오직 신념에 따라 행동했을 뿐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선택은 결코 하지 않았던 고결한 선비였다.

Ⅳ. '忍苦歲寒'의 군자적 면모

동계에게 있어 유배지는 속죄의 공간이기도 했다. 동계는 시비(是非)를 떠나 이러한 속죄를 신하된 자의 소임이라 여겼다. 1613년 영창대군 옥사가 일어나자 동계는 광해군과 대북파의 횡포에 소신을 굽히지 않고 그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다가, 결국 환로(宦路)에 들어선지 불과 3년 만인 45세에, 사형을 겨우 면하고 제주도 대정현에 10년간 위리안치된다. 이 시기 그의 모습은 『논어(論語)』「자한(子罕)」편에 나오는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也)"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송백의 푸르른 기상을 알 수 있듯, 태평성세에는 군자와 소인이 다를 것 없으나, 이해(利害)의 사이에서 혹은 사변(事變)이 일어난 뒤에 비로소 군자의 진가를 알 수 있는 법이다.

유학자가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 자신의 도덕적 완성(修己)을 이루고 인간 사회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治人)인데, 이는 모두 실천의 영역에 들어간다. 배운 지식과 의리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현인(賢人)이나 군자(君子)가 될 수 없다[56]는 언급에 주목한다면 동계야말로 진정 군자가 되고자 노력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본장에서는 자신의 신념 어린 행동과 그에 따른 혹독한 결과를 오랜 기간 원망 없이 수용한 동계의 꿋꿋한 지절에 주목해서 '인고세한(忍苦歲寒)'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일반

55) 鄭蘊, 『桐溪集』 續集 卷一, <留於蘭館>, "遠禦魑魅亦臣分, 顚危不敢怨蒼天."

56) 강춘화, 「知行-인식과 실천의 변증법-」,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378쪽.

적으로 '세한'은 한겨울의 추운 날씨를 의미한다. 그래서 추위에 잘 견디는 소나무, 잣나무, 대나무를 '세한삼우(歲寒三友)'라 하며, 역경 속에서 지조를 굽히지 않음을 '세한송백(歲寒松柏)'이라 하여 선비의 절개를 칭송하는 문학적 수사로 자주 사용한다.

동계에게 있어 유배는 눈 위에 서리가 쌓이는 격으로 '세한(歲寒)'의 와중에 다시 눈보라가 치는 설상가상(雪上加霜)의 힘든 시간이 되었던 듯하다. 이러한 점은 그의 시에 등장하는 정신적·육체적 고난에 관한 점층적 표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계는 마치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국화와 매화처럼 절해고도에서 인생의 시련기를 보내며 다시 출사할 날을 간절히 갈망했다. 이러한 그의 시에는 현재 처지에 대한 탄식이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그의 이 같은 토로는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자신에 대한 처분에 늘 촉각을 곤두세운 채 전전긍긍 불안감을 안고 지내야 했을 유배자의 필연적 절규라 할 수 있다. "북쪽에서 오는 소식은 모두 두려워, 밤에는 등불로 점치고 낮에는 동전을 던져본다네."[57]라는 시구를 통해서도 단편적이나마 당시 그의 심정과 상황을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서고금의 수많은 인사들이 유배를 통해 자신의 학문과 예술 세계를 성숙시켰듯 동계 역시 위리안치에 처해진 10년의 기간을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시기로 삼아 쇠를 담금질하듯 자신을 단련시켜 나갔다. 이는 유배기 이후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그의 행적에서 잘 드러난다. 자신의 시에서 늘 밝혔듯 충(忠)과 효(孝), 이 두 글자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추구했던 동계, 그는 분명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을 지녔던 인물이었다.

그럼 실제 작품을 통해 '인고세한'으로 명명한 동계의 군자적 면모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주로 제주 유배기의 작품을 다루되 이와 관련해서 경성 좌천기의 작품도 일부 언급하도록 하겠다. 다음 시는 <회포를 적으며(述懷)>[58]라는 칠절(七絶) 연작시 두 수 중 첫째 수의 기구와

57) 鄭蘊, 『桐溪集』 卷一, <偶成>, "北來消息俱堪怕, 夜卜燈花晝擲錢."
58) 鄭蘊, 『桐溪集』 卷一.

승구이다.

平生用意雪霜間　평생 눈서리 사이에 뜻을 두었기에
不願條枝綠且曼　가지마다 푸르고 무성하기를 원치 않노라.

이 시에서 동계는 자기 인생의 지향점을 밝히고 있다. 나무의 가지가 푸르고 무성함은 사람에 비유하자면 일신의 부귀와 영달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이 가치를 둔 그곳이 눈서리로 상징되는 시련의 길임을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시는 진지함을 넘어서 자못 비장한 느낌마저 준다. 이는 동계가 「덕변록서(德辨錄序)」에서 "내가 이 『덕변록』을 집성하는 것은 또한 환난에 대처하고 천한 자리에 거처하는 도리를 배워 도(道)에 곤궁하지 않기 위해서다."[59]라고 언급한 대목과도 통한다. 그래서인지 동계는 자신의 처지를 추위에 피어나는 매화에 빗대기도 했다.

다음 시는 <매화를 꺾어 병에 꽂고서(折梅植壺中)>[60]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길지 않은 짧은 가지가 그나마 온전하지 못하고 꺾인 것을 보며 매화를 위로하는 내용이다. 이 시에 나타난 시련에 대한 점층적 표현은 동계의 시에서 자주 눈에 띄는 특징적 면모이다.

寒梅莫恨短枝摧　추위 속에 피어난 매화, 짧은 가지 꺾임을 한하지 말아라.
我亦飄飄越海來　나도 이리저리 떠돌다 바다 건너 왔단다.
皎潔從前多見折　맑고 깨끗한 자, 옛부터 많이들 꺾였으니
只收香艷隱蒼苔　다만 향기와 자태 거두어다 푸른 이끼에 숨겨 두렴.

매화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꽃이다. "매화는 일생을 추위에 떨어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梅一生寒不賣香)는 어구에는 시련에 굴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추위 속에 힘겹게 그 자태를 드러냈건만 짧은 가지가 꺾여버린 매화의 시련과 온갖 고초를

59) 鄭蘊, 『桐溪集』 卷二, 「德辨錄序」, "余之集成此錄者, 其亦學處患居賤之道, 而求以不困乎道而已."
60) 鄭蘊, 『桐溪集』 卷一.

다 겪고 결국 바다까지 건너온 시인의 시련이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 나란히 제시되어 있다. 자신의 처지를 통해 매화를 위로하는 동병상련의 정이 보이는 부분이다. 특히, 승구의 '역(亦)'자는 강한 공감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전구와 결구에서는 시련의 시기를 견뎌나가는 방법, 즉 은일의 도를 말하고 있다. 매화의 향기와 자태는 동계에게 있어 국가를 위한 충정과 능력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 그가 시에서 종종 언급했듯 멱라에 투신한 굴원 같은 최후[61]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은일자중(隱逸自重)의 도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동계의 서간(書簡)인 「이장 대기에게 보낸 편지(與李丈大期書)」와 「정언 오익승에게 보낸 편지(與吳正言翼承書)」가 도움이 된다. 두 편지 모두 유배자의 입장에서 유배객에게 보낸 글이다.

> ① 양쪽의 시비는 물을 것 없고, 오직 의리로써 명에 대처하고, 만나는 데 따라 편안히 여기며, 조용한 때에 고인의 글을 펼쳐 보고 즐거워하며 근심을 잊어야 할 것이니, 이는 진실로 환난을 견디는 첫 번째 조항입니다."[62]

> ② 모든 일이 명 아닌 것이 없으니, 화와 복이 이르는 것도 지력으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순순히 명을 받아 운명인듯 편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함께 힘쓸 도입니다.[63]

①·② 모두 수양을 통해 마음을 기르는 '양심(養心)'의 도(道)에 대해 설파하고 있다. 인생에서 불가항력적 사건의 존재와 이로 인해 발생한 환난을 수용함으로써 험난한 유형지에서 성명(性命)을 보존하라는 것이

61) 굴원의 처신과 행적에 대한 議論을 알고자 한다면 「李奎報의 <屈原不宜死論>에 나타난 歷史意識의 문제점」(윤인현, 『韓國 漢詩와 漢詩批評에 관한 硏究』, 아세아문화사, 2007)을 참고하면 된다.

62) 鄭蘊, 『桐溪集』 卷二, 「與李丈大期書」, "兩地休咎, 不須相問, 惟當以義處命, 隨遇卽安, 時於靜中, 披閱古人書, 樂而忘憂, 此實耐患之第一條也."

63) 鄭蘊, 『桐溪集』 卷二, 「與吳正言翼承書」, "凡事無非命也, 禍福之來, 非智力所能避. 但當順受, 安之若命, 此吾儕今日相勉之道也."

이들 편지의 취지이다.

다음 작품은 시인의 고독감이 절절이 묻어난 <등불이 없어 일찍 자리에 들며(無燈早臥)>[64]라는 제목의 시인데 수련의 점층적 표현이 돋보인다. 이 시는 무거운 음성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무리는 가볍게 처리함으로써 '세한(歲寒)'의 시절을 견뎌내는 동계의 군자적 모습을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愁人元自知長夜　근심 많은 사람 본디 밤이 긴 걸 알지.
況是無燈獨守玄　하물며 등불도 없이 홀로 어둠을 지킴에랴.
殘臘天寒螢未拾　저무는 섣달 날도 차서 반딧불도 못 줍고
孤栖隣遠壁難穿　외로이 사니 이웃집이 멀어 벽조차 못 뚫겠네.
枕頭淚濕悲身世　베갯머리 눈물로 적시며 신세를 슬퍼하노니
暗裡吟成感歲年　어둠 속에서 세월을 느끼며 읊조리노라.
安得睡魔容易到　어찌하면 수월하게 잠들어
暫爲蝴蝶故山翩　잠시나마 나비되어 고향 산천 날아볼까.

제주도 시절, 동계는 겨울만 되면 불면증으로 고생했다.[65] 특히 제7구의 '수월하게 잠들어'라는 표현은 그의 유배 생활이 불면의 연속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시의 수련은 동계시의 특징인 고난에 대한 점층적인 표현으로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인은 근심 많은 몸에 불면까지 겹쳤는데 설상가상으로 등불마저 없어 어둠 속에 처량한 모습으로 우두커니 앉아 있게 된 것이다.

함련에서 '이웃이 멀다'는 표현은 조정 내지 사회와의 거리감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세상에서 배제된 자가 느끼는 방외인적 소외감이라 할 수 있다. 수련과 함련에서의 침울한 분위기는 경련에서 탄식으로 이어져 절정을 이루다가 마지막 미련에 와서 그나마 밝은 정조(情操)로 전환된다. 비록 상상이지만 미련에 제시된 고향 이야기를 통해

64) 鄭蘊,『桐溪集』卷一,
65) 앞서 2장에서 살펴 본 「答林樂翁問」(『桐溪集』卷二)에 잘 나타나 있다.

그가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고난에 대한 점층적 표현은 동계의 여러 시들에서 발견되는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 시인이 처한 '세한(歲寒)'의 상황이 강조되고, 그 속에서 고군분투한 시인의 '인고(忍苦)'가 부각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가을이 다가고(秋盡)>[66], <공원과 이수가 일 때문에 먼저 갔는데, 이별 후에 감회가 있어(功遠, 而受, 以事先歸, 別後有感)>[67], <병중에 괴로이 읊으며(病中苦吟)>[68]라는 제목의 시 세 수를 살펴보겠다.

① 大抵人情悲暮景　대체로 인정이란 노년을 슬퍼하는데
況余憔悴在孤囚　하물며 나처럼 초췌하게 외로운 죄수되었음에랴.

② 人生離別元來苦　인생에서 이별이란 본디 괴로운 법인데
況是殘魂瘴海秋　하물며 약해진 마음에 가을 바다에서 그랬으니.

③ 萬死殘骸百病攻　송장 같은 몸에 온갖 병이 침노하니
中虛外感日枯容　허한 가운데 감기에 걸려 날마다 야위어 가노라.

①은 칠절(七絶)의 전구와 결구 부분이다.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의 씩씩한 기상은 자연히 사라지고, 인생의 허무함과 서글픔만이 크게 다가오는 법이다. 동계는 초라한 유배객의 신분으로 노년에 접어든 자기 신세의 처량함을 점층적으로 나타냈다.

② 역시 칠절(七絶)의 전구와 결구 부분이다. 회자정리(會者定離)가 불변의 이치이긴 하지만 아쉬움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특히, 시인의 경우 절해고도에 유배된 처지, 약해질 대로 약해진 마음, 가을 바다라는 시공간, 이 모든 상황이 견디기 힘든 아픔을 자아내게 한다. 이러한 점층성은 제4구에 사용된 '황(況)'자에 잘 반영되어 있다. 동계의 시

66) 鄭蘊,『桐溪集』卷一.
67) 鄭蘊,『桐溪集』卷一.
68) 鄭蘊,『桐溪集』卷一.

에서 인고세한의 정신은 이러한 점층적 표현 속에 잘 녹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은 칠률(七律)의 수련부로서 절해고도 유배지에서 신고(辛苦)를 겪은 끝에 산송장이 다 되었는데 거기에 다시 병이 찾아든 상황, 약한 몸에 감기마저 걸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가는 모습을 읊었다. 각 구마다 고난에 대한 점층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수사를 통해 동계가 발휘하는 인고세한의 정신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기묘사화(己卯士禍) 후 진도와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된 김정(金淨)의 시에도 거의 뼈만 남은 상태로 유배지를 향해 출발하여 험난한 파도를 거쳐 적소(謫所)에 이른 고충과 절망 속에서의 자기 다짐이 잘 나타나 있는데[69] 이는 동계의 시와 좋은 대비가 된다. 다음 시는 <마른 대나무가 다시 살아나니(枯竹還生)>[70]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고자 노력하는 시인의 자세를 읽을 수 있다.

移竹當窓種	창문 앞에 대나무를 옮겨 심음은
要看雪裏莖	눈 속에 줄기를 보고자 해서라네.
土新枝蹙悴	새 흙이라 가지가 잠시 시들했으나
天定葉初萌	하늘이 정한 이치라 잎이 비로소 싹트네.
得雨添生色	비를 맞자 생기가 돌고,
逢風漸有聲	바람을 맞자 점차 소리를 내는구나.
干霄孤幹在	하늘에 닿을 듯한 외로운 줄기 있으니
從此日崢嶸	이로부터 날로 쭉쭉 자라나리라.

이 시는 대나무에 대한 의상(意象)을 이용해 자신의 의지를 고취한 작품이다. 눈 속에 뻗어난 푸른 대줄기를 본다는 수련의 내용은 유배 중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자 애쓰는 동계의 다짐을 의미한다. 이어서 전개되는 함련에서는 새로운 장소에 적응해 다시금 싹을 틔우는 대의 모습

69) 안병학, 「김정 시세계에서 삶의 무상성과 그 극복의 형상화」,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 2005, 199-200쪽 참조.

70) 鄭蘊, 『桐溪集』 卷一.

을 통해 유배지에서 자신의 본분을 되새기며 지내는 시인을 형상화했다. 특히 제4구의 '천정(天定)'이란 시어는 45세부터 10년간 제주도에 위리안치된 시인이 마치 하늘이 자기에게 내린 명을 깨달았다는 '지천명(知天命)'을 말하는 듯하다.

함련과 경련에서는 시적 내용이 본격적으로 밝아지고 있다. 옮겨 심은 대가 자리를 잡자 비바람에 활기를 보인다는 것은 유형지의 거친 풍우가 이제 더이상 자신을 흔들어 놓는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단련시키는 원조물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마지막 미련에서는 앞으로 숱한 날들을 그렇게 성장해 나갈 대나무처럼 시인 역시 꾸준한 자기 성장을 이룰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시에는 주위 환경에 굴하지 않는 인고세한의 기상이 서려 있다. 다음에 제시된 시들에서도 주변 여건에 구애됨 없이 꿋꿋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동계의 기개가 반영되어 있다.

① 孤松已老半無枝　외로운 소나무 이미 늙어 가지가 반도 없는데
翠葉猶存傲雪姿　푸른 잎은 여전히 눈 속에서 도도한 자태를 뽐내네.

② 老查皺落半無枝　늙은 등걸 쭈글어지고 떨어져 반은 가지도 없다.
寒蘂稀疎傲雪姿　차가운 꽃술은 성글지만 눈 속에선 도도한 자태.

①은 <못 가운데 노송을 읊으며(詠池中老松)>[71]라는 칠절(七絶)의 기구와 승구이다. 이는 함경도 경성으로 좌천되어 가던 도중에 쓴 작품으로 가지가 듬성듬성한 노송의 자태를 읊었다. 볼품없는 초라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눈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 기상에 주목한 것이다. 늙음과 추위의 이중고 속에서도 본래의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시인 역시 환해(宦海)의 격랑에 굳건히 맞서고자 하는 것이다.

②는 칠절(七絶) <그림 속 매화(畵梅)>[72]의 기구와 승구이다. 이미 고

71) 鄭蘊,『桐溪集』卷一.
72) 鄭蘊,『桐溪集』卷一.

목이 다 된 늙은 매화가 여전히 차가운 눈 속에서 꽃을 피우는 모습을 그려냈다. '노(老)', '추(皺)', '낙(落)', '무지(無枝)', '한(寒)', '희소(稀疎)', '설(雪)' 등 사용된 시어 대부분이 개화(開花)를 방해하는 요소이거나 매화의 초라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매화는 오직 '오(傲)', 이 한 가지로 버텨내고 있다. 차가운 눈을 비웃는 도도함과 오만함, 이는 바로 동계가 지향하는 선비정신에 다름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동계는 '노(老)'와 '한(寒)', 이 내외(內外)의 조건이 야기한 점층적 시련을 딛고 일어서서 본래의 자태를 유지하는 송매(松梅)처럼 자신 역시 공사(公私)의 만난(萬難)을 극복하는 인고세한의 정신을 추구하고자 했다.

Ⅴ. 결 론

본고에서는『동계집』에 실린 시 가운데 주로 유배 및 좌천기의 시작(詩作)을 대상으로 동계의 선비정신에 대해 고찰했다. 그의 시에 나타난 선비정신은 '온유돈후(溫柔敦厚)', '반구저기(反求諸己)', '인고세한(忍苦歲寒)'으로 세분할 수 있었다. 42세 되던 1610년, 환로에 들어서서 70세 되던 1638년, 치사(致仕)하기까지 광해군과 인조, 두 군주를 섬기며 무려 삼십 성상(星霜) 가까이 국사를 위해 구치(驅馳)했던 동계의 행적은 선비정신을 떠올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관직에 있는 동안, 동계는 일신(一身)의 안위(安慰)를 추구하며 복지부동하지 않았다. 그는 국가의 녹을 받는 관리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시대의 격랑에 맞서 철저한 투쟁적 자세로 일관했다. 필자는 이러한 강직한 면모에서 진정한 선비의 풍모를 읽을 수 있었으며, 울울한 역경의 시기에 지어진 작품들에서 굴곡 많은 인생을 살다간 동계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동계의 선비 정신에 대해 고찰했다.

동계의 시 가운데 특히, 유배 및 좌천기의 시작(詩作)은 그의 극적인 감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유배지에서 지은 시는 왕에 대한 충정과 끊임없는 모친 걱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조와 자학으로 점철되어 있기에 논의를 전개하는 데 훌륭한 자료가 되었다. 동계는 10년간의 유배와 북방으로 폄적되는 참담함 속에서도 언젠가 있을 외부와의 소통, 즉 조정으로부터의 소환을 기다리며 자성(自省)적 자세로 끈질기게 인내했다.

이러한 동계의 시는 첫째, 온유돈후(溫柔敦厚)함을 그 특징으로 한다. 유배와 좌천으로 인한 침울한 정서를 자연 경물을 매개로 에둘러 표현함으로써 만족스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가 유머러스하다. 동계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 고독, 번민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온유돈후한 수사 속에 융해시켜 나타냄으로써 험난한 외부 환경을 견디며 성정의 온유돈후함을 유지했다.

둘째, 동계의 시는 '반구저기(反求諸己)'의 자성적 자세를 견지했다. 그에게 있어 유배와 좌천, 특히 유배는 반성의 공간을 제공했다. 동계의 행적은 불의와는 거리가 먼 교결(皎潔)함 그 자체였던 만큼 그의 반구저기는 자신의 불의에 대한 반성이 아닌 자신의 성품에 대한 성찰이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 자탄, 자조, 자학의 심정이 어우러져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동계의 시에는 '인고세한(忍苦歲寒)'의 군자적 면모가 나타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념 어린 행동과 그에 따른 혹독한 결과를 꿋꿋하게 수용했다. 동계에게 있어 유배는 '세한'의 와중에 다시 눈보라가 치는 설상가상의 힘든 시간이었다. 시에 등장하는 정신적·육체적 고난에 관한 점층적 표현에서 이러한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계의 시에 나타난 이들 세 가지 특징은 그가 힘쓴 수기(修己)의 결과이며, 고난의 시기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한 힘으로 작용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위대한 문학은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항시 인간적이고 인문정신(人文精神)을 간직하고 있다[73]는 말을 실감하며, 격동의 시기를 살다간 한 선비의 정신 세계를 고찰했다.

<참고 문헌>

『論語』, 『孟子』, 『周易』
鄭 蘊, 『桐溪集』(『한국문집총간』 75, 민족문화추진회 편, 1988)
鄭 蘊, 『桐溪先生文集』(한국문집편찬위원회 편, 1993)
鄭 蘊, 조동영 譯, 『국역 동계집』 Ⅰ, 민족문화추진회, 2000.
鄭 蘊, 조동영・박대현 譯, 『국역 동계집』 Ⅱ, 민족문화추진회, 2003.
鄭 蘊, 공근식・박대현 譯, 『국역 동계집』 Ⅲ, 민족문화추진회, 2004.
강춘화, 「知行-인식과 실천의 변증법-」,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고정우, 「동계 정온의 유배한시 연구」, 제주대 석사논문, 1986.
김낙진, 「義理-공존과 공익을 위한 모색-」,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김주한, 『韓國文學批評史論』, 학사원, 1995.
안병학, 「김정 시세계에서 삶의 무상성과 그 극복의 형상화」,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 2005.
양순둘, 「동계 정온 연구」,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
여운필, 「동계 정온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제9집, 한국한시학회, 2005.
윤인현, 『韓國 漢詩와 漢詩批評에 관한 硏究』, 아세아문화사, 2007.
이구의, 『崔孤雲 文學 硏究』, 아세아문화사, 2005.
임형택, 『韓國文學史의 視角』, 창작과비평사, 1984.
정시열, 「西厓 柳成龍의 '說' 硏究 -'說'에 나타난 西厓의 면모 고찰-」, 『한국 한문학연구』 제40집, 한국한문학회, 2007.
정요일, 『漢文學批評論』, 집문당, 1990.
정요일, 『漢文學의 硏究와 解釋』, 일조각, 2000.

73) 김주한, 『韓國文學批評史論』, 학사원, 1995, 606-607쪽.

Abstract

A Scholar Spirit shown Donggye Jeong On's Poems / Jeong, Si-y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xpression aspects of scholar spirit shown in the poems during the periods of exile and demotion among the poems from 『Donggyejip』. Donggye became a governmental official over forty years old in 1610. During his tenure, Donggye did never forget his mission as a government official supported by taxes and did maintain his thoroughly struggling attitudes against periodic raging waves rather than pursued the loftiness of his body.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could truly find out the true features of a scholar in his rigid attitudes and could confirm his true character, with which he went through turbulent life experiences in the works written in the period of hardship. This was the reason for doing research on Donggye's scholar spirit.

During his 10-year exile and demotion to the northern area, he awaited the communication with outside, namely, a call from the Royal Court, even under such distress and endured it with a reflective attitude. Considering this point focusing on the aspect of self-culture, his exile and demotion had three distinct characteristics. They were referred to as 'Onyudonhu(溫柔敦厚)', 'Bangujeogi(反求諸己) and 'Ingosehan(忍苦歲寒)'. Along with them, it has been hoped that this study could examine the spiritual world of a scholar who lived a turbulent period about 400 years ago and give us an opportunity to reflect our current features.

Key words: Donggye(桐溪), Jeong On(鄭蘊), Scholar Spirit, Onyudonhu(溫柔敦厚), Bangujeogi(反求諸己), Ingosehan(忍苦歲寒).